

지난 여름 미국의 국방관련 부처는 재정 문제로 들끓었었다. 그러나 실제로 폐기되거나 해를 입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용을 경감하고 適材適所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국방성과 업체, 의회의 노력으로 예기치 못하게 몇몇 계획들이 진척되었는가 하면 어떤 계획들은 후퇴하거나 담보상태에 머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美 공군은 B1-B 폭격기 생산과 관련하여 보고된 불행한 사태로 인하여 전망이 불투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옹호자들이 B1-B 폭격기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방성과 General Dynamics社 그리고 유럽의 4개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간의 양해각서 추진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에 개량형 FALCON의 구입을 가능케 해주리라는 보장도 없이 AGILE FALCON문제를 놓고 다시 둘러 앉았다.

한편 美 육군은 장벽에 부딪친것 같다. 육군은 中型 대장갑 무기체계(AAWS-M)가 전개될때 까지 McDonnell Douglas社의 DRAGON II, 스웨덴 Bofors社의 BILL, Euromissile社의 MILAN 중에서 DRAGON을 대체할 기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 56 사진 참조)

아직도 美 육군은 중형 對장갑무기체계 시험을 놓고 Ford Aerospace, Hughes Aircraft, Texas Instruments등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업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Ford社는 레이저광선 탑재장치를, Hughes社는 광섬유 유도장치를 개발하였으며, TI社는 Fire-and-forget 옵션을 개발하였다. 각 무기체계는 육군 트럭을 표적으로 하여 가용살상범위에서 시험되었다.

방공대전차장비(ADATS)의 전개가 지연될 경우 업체와 계약을 재협상해야 하고 10%의 비용상승이 일어난다는 軍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 국방성은 성능시험의 완료와 단기비용절감을 위하여 Martin Marietta/Oerlikon社의 ADATS 장비전개를 예정보다 25개월이나 늦추었다.

또한 미국의 조선업자들은 일본이 자국 최초의 AEGIS함 건조업체로 미쯔비시社를 선정하였고, General Electric社만이 AEGIS함 건조계획에 일부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GE社는 일본의 AEGIS함 건조에 自社의 LM2500엔진 4대를 제공할 것이다.

국방성의 經費節減 노력

美 공군이 MIDGETMAN의 가격조정문제를 건의하였을때 전략무기분야에서는 Boeing社와 Martin Marietta 그리고 Rockwell International社가 전전공공하였을 것이다. Boeing社의 이동발사기 개발 계약은 2억7천5백만불 이상이 감소될 것이며, Martin Marietta社의 post-boost vehicle 개발은 대략 1억불, Rockwell社의 유도장비 계획은 거의 3억7천5백만불 가량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재조정과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국방성 차관 Robert H. Coste-

美 육군은 中型 對裝甲 무기체계 (AAWS-M)가 전개될 때까지 MD社의 Dragon II, 스웨덴 Bofors社의 Bill, EEuromissile社의 Milan중에서 Dragon을 대체할 기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공대전차장비 (ADATS)의 전개가 지연될 경우 업체와 계약을 재협상해야 하고 10%의 비용상승이 일어난다는 軍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방성은 성능시험의 완료와 단기비용절감을 위하여 Marietta/Oerlikon 社의 ADATS 장비전개를 예정보다 25개월이나 늦추었다.

llo가 의장으로 있는 국방성의 국방획득위원회(DAB)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현실에 맞추어 분석가들이 말한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차기 대통령이 따를 만한 적절한 무기조달전략은 없지만 분명히 차기 행정부가 현재의 획득체계를 완전히 개편하지는 못할만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

의회의 적극성과 업체의 민감한 반응이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익의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든 변화의 뒤에 숨어있는 주된 요인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맹국의 방위나 미국의 안보 또는 방위산업에 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1988년 8월에 유럽의 주요 방산제조업체 20개社 중에서 18개 업체가 1월 이후의 월간 최저치 보다 20~50%의 이익증대를 이룩하였다. 미국의 15개 선두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중에는 지난 여름의 열기에 휘말렸던 General Dynamics, Martin Marietta, McDonnell Douglas, Northrop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성은 美 육군으로 하여금 Raytheon의 개량 전술 PATRIOT계획에 더욱 정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만약 미국과 서독이 장차 유럽에서의 PATRIOT 전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수 있다면, NATO의 1996년 對戰術미사일 방어계획은 사거리 증가와 보다 강력한 힘, 감지력이 개선된 레이다로 인해 정확도가 향상된 PATRIOT로 더욱 성공적이 될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NATO회원국의 1백60여 방산업체가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COMDEF '88에 참가하였다. 미국 업체중에는 GD, GE, LTV社등이 참가하였다. 이 전시회는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는 전시회로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업체 對 업체간의 협력관계를 증진·발전시키기 위하여 양해각서 추진을 강조하고

청사진에서 실물에 이르기 까지 쌍방간의 변화를 돕기위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지난 한해동안의 무역정보교환이 각국 업체들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몇몇 계약팀 구성협약에 교량역할을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이스라엘 업체는 합작사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달러를 획득하는데 성공할 것 같다. 이스라엘의 Tadiran社는 최근에 SINCGARS 무선통신기의 2차 원자재 생산과 관련하여 GD社의 Electronic Div.과 함께 자금의 일부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Rafael社는 Ford Aerospace社와 더불어 GD社의 美 육군 M1A1 ABRAMS 주전차에 야간조준경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對美 마케팅활동의 결과인가?

프랑스 및 터키와 함께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산업체들이 장차 사업과 관련한 공동관심사를 발견할수 있으리라는 희망속에 미국정부와 국방관계관을 위해 연례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방성의 국방선행연구계획청(DARPA)은 Ferranti의 최신 對헬기 기술 즉 지상발사기뢰 장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일련의 미국 최고의 민간과학자들은 국방선행연구계획청을 非軍事用的 商用기술을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 민간기술연구기관의 모델로 인정하였다.

미국의 의회는 국방정보국이 매년 美 의회에 제공하는 정보를 미국의 동맹국들이 접한다면 그들 국가가 NATO 기부금을 증액시키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의회는 국방정보국과 기타 美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비밀 「위협」보고를 적절한 때에 유럽동맹국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지도 모른다.*

〈MILTECH 88/10〉